



부마항쟁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제 1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의 관건, 금권 동원에도 불구하고 제 10당이던 신민당이 총 유효표 가운데 여당보다 1.1% 더 득표하였다. 이는 박정권의 장기독재와 개발독재를 반대하는 민심의 반영이었다. 이러한 민심이반 현상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으로 표출되어 유신체제의 몰락을 재촉했다.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번지자 박정희 정권은 장갑차를 탄 무장 군인들을 투입할 정도의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12월의 성찰과 다짐

12월입니다. 한해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은총의 달입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으레 반성과 아쉬움, 회한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쉬움과 회한 앞에서 결코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선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못다 이룬 사안들을 꼼꼼히 되살피며 다음 기회에는 더 아름답고 알찬 열매를 이루도록 다짐하며 창조적 계획을 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설계할 바로 그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라는 렌즈를 통해 역사를 관통하고 현실을 진단해야 합니다. 민주화는 표현 그대로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늘 보다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며 민(民)이 주인이고 주체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10여 년의 삶을 이제 깊이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참으로 최선을 다 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지혜롭게 차선책이라도 성의껏 강구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공공기관장의 자리에만 연연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사실 10여 년의 두 정권을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

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은 물론 그저 한 자리만 차지하고서는 무사안일하게 ‘뜻만 좋으면 국민이 다 이해 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안주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두 정권 모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거짓 속성과 왜곡의 독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어영부영 지낸 무책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깊이 뉘우쳐야 합니다.

영화 <빠삐용>의 교훈을 새삼 되새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빠삐용은 꿈속에서 하느님의 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무죄라고 항변해도 심판관은 ‘너는 유죄다!’ 라고 반복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빠삐용은 하도 기가 막혀 ‘아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외칩니다. 그때 재판관은 ‘너는 시간을 허비했어, 시간을 허비한 죄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아는가? 너는 유죄야!’ 하고 무섭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가슴을 치고 뉘우치며 지금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사실 빠삐용은 목숨을 걸고 재도전하여 끝내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시 함께 뜻을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새 정권 이후에 많은 이들은 역사가 퇴행하고 민



한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거짓 언론, 집단이기주의, 청년학생들의 열정과 이상의 상실, 종교의 상업화, 학원가의 비리, 경제악화, 야당의 무력과 진보진영의 분열 등 사람과 직종의 수만큼 그 내용과 변(辨)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의 공동책임입니다.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은 바로 그 시대, 국민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언론, 검찰 등의 추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한계입니다. 남북 경색국면도 한가지입니다. 말로는 언제나 대화의 자세가 열려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닫아놓고서는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바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교훈을 되새기고 실천할 때입니다. 상식이 진리라 했습니다. 상식이란 말 그대로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감성(感性)입니다. 감성이란 말과 생각의 느낌입니다. 동물적 감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본능적 직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 직감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共感)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론의 공감대입니다. 물론 거짓 여론과 거짓 공감대도 있습

니다. 조작될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군부독재와 그 아류정치인 그리고 사이비 언론을 통해 거짓 여론과 거짓 공감대 형성을 술하게 체험하고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바른 식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바른 식별력은 바른 지성을 통해서만 확인됩니다. 요사이 새삼 인문학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 늘 중심이고 목적이어야 함을 인문학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원 전 2세기에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회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위대하시고 경외로우신 하느님, 저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당신께 거역하였습니다. 당신의 계명과 법규에서 벗어났습니다. …… 주님, 들어주십시오. 용서해주십시오. 귀여겨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다니엘9, 4.5.19)

바로 지금이 선열들 앞에서 반성하고 뉘우칠 때입니다. 모두 함께 다시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결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금씩 서로 양보하여 큰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세웅*



표지 -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02 책머리에
12월의 성찰과 다짐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아물지 않는 100년의 상처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서대문형무소 | 김중철



12 특별기고
카트만두 아시아 민주주의 포럼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평화 | 김 신

18 사료이야기
서울 XXXX년 겨울 | 어수갑

22 사업회 소식

사진으로 보는 사업회 2008년
사업회 7주년 기념식 개최 등
미국 직접 민주주의 워크숍 참관기 | 이정옥



34 문화초대석

“사회적 약자 시각으로 작품 만들고 싶어”
공연예술가 김민정 | 김미영



40 게시판

42 독자기고

시비를 가려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 | 이종환



44 독자마당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8년 12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양경희, 김혜진
편집취재 김중철,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희파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